

한국서부발전 '민간 일자리 창출 특별상' 수상



1 김경재 기술본부장(왼쪽 세번째)이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평택발전본부와 군산발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한국에너지공단 주최 행사에서 상을 받은 단체 관계자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11월 15일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웨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2018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Energy Champion) 인증서 수여식'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특별상'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술혁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을 선정해 선도적 역할을 격려하고 우수사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상이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40여 곳의 농가에 맞춤형 감축 사

업을 지원한 점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산하 사업장인 평택발전본부(복합)와 군산발전본부는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을 도입한 후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외부 심층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2017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 처음 정부 공식인증제도로 격상됐다.

서부발전을 포함한 공기업 3곳, 포스코 등 민간기업 16곳 등 19개 기업이 최종 인증 대상으로 뽑혔다.

서부발전 김경재 기술본부장은 "에너지산업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서부발전의 특화된 에너지 경영활동을 한층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본업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